

AIDS 환자에서 합병된 미만성 침윤성 임파구증가증 증후군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서울 백병원
권선옥*, 김선영, 허진국, 이현경, 이성순, 이영민, 진재용, 이혁표, 김주일, 최수전, 엄호기

HIV에 감염된 환자에서 미만성 침윤성 임파구증가증 증후군은 CD8+ 임파구의 순환과 조직침윤이 특징이다. 특히 침샘, 신장, 간질, 폐, 소화관에 일차적으로 나타나는데 폐를 침윤한 경우는 아주 드물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예는 없다. 이에 저자들은 AIDS 환자에서 폐에 합병된 미만성 침윤성 임파구증가증 증후군으로 확진된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58세 남자가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하얀 객담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서 여러차례 치료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Anti-HIV Ab 및 Western blot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AIDS로 진단되었고, 말초 혈액 세포분획검사에서 CD4/CD8 비가 0.18 및 절대 CD4+ 세포수는 304/uL였다. 청진 상 양 폐음은 감소되어 있었고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양 폐야에 세망상형과 미세 결절형 혼탁음영이 보였다. 기관지경 생검에서 미생물 병인은 보이지 않았고 CD8+ 만 보여 미만성 침윤성 임파구증가증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환자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퇴원하였고,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폐와 간을 동시에 침범한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1예 A case of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involving lung and liver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내과 오현숙*, 정윤희, 윤여준, 서기현, 나주옥, 김용훈

배경/목적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은 랑게르한스 세포가 과증식하여 여러 장기와 조직에 침윤하는 반응성, 증식성 질환으로, 신체의 거의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데, 침범 장기에 따라 여러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특히 간과 폐를 동시에 침범한 예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저자들은 43세의 남자에서 간과 폐에 동시에 발생한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을 간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3세의 남자환자로 내원 2개월 전부터 발생한 기침과 우측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진찰소견은 흡기시에 우측 흉통을 호소하는 외에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에서,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0,900/mm³, 혈색소 12.8 g/dL, 혈소판 330,000/mm³ 이었고, 생화학 검사는 정상이었다. 동맥혈 가스 검사는 산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하였고, 폐기능 검사도 정상 소견이었다.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양측 폐상부에 다수의 얇은 벽의 낭종형 병소(thin-walled cystic lesion)와 그 주위의 작은 결절들(small nodules)도 관찰되었다. 또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간에 다수의 저음영 결절(low attenuation nodules)과 celiac axis 및 체장 주위에 림프절이 커져 있었다. 경피적 간조직 검사 결과, 광학 현미경 소견에서 간실질에 국소적으로, 호산구와 함께 만입된 핵을 가진 세포들의 군집이 관찰되었고, 또한 핵 내에서 홈(grooving)도 관찰되었다. 세포들이 S-100단백과 CD1a 면역염색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어,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으로 진단하였다.